



아트마켓이 뜬다
▶ 광주 작가 박소빈씨 뉴욕 진출기



오리지널리티 있어야 세계무대 통한다

광주출신 박소빈씨가 최근 뉴욕의 첼시아트뮤지엄에서 열린 개인전에서 관람객들에게 작품설명을 하고 있다. (왼쪽) 뉴욕의 브루클린에는 공장 창고를 리모델링해 작가의 작업실로 활용하는 건물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 건물은 첼시에 비해 임대료가 저렴해 젊은 작가들에게 인기가 높다.



현수정 뉴욕 통신원

큐레이터와 갤러리스트 협력으로 '작가 만들기'

진지한 매진과 노력으로 자신만의 브랜드 구축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 뉴욕은 작가로서 한 번쯤 머물고 싶은 도시이다. 뉴욕 맨하탄의 중심에 있는 센트럴파크 주변으로 메트로폴리탄, 구겐하임, 휘트니 같은 대형 미술관과 명품 숍들이 즐비한 미드타운의 5번 에비뉴 거리를 지날 때면 뉴욕의 넘치는 풍성함과 화려함에 기분이 고조된다. 하지만 세계에서 모여드는 예술가들이 느끼는 이 도시의 매력은 이러한 물질적 화려함만이 아니라 세계 다민족의 특성이 존중되고 공존되는 문화적 풍요함에서 비롯되고 있다. 또한 고급문화와 상업문화, 기성문화와 신진문화가 각각의 특성을 방해하지 않고 추구되고 있는 것도 뉴욕이 가진 문화적 장점이다. 특히 브루클린은 뉴욕의 어느 곳보다 기성화된 문화에 새로운 피를 수혈하는 심장처럼 다양성과 실험적인 열기가 넘치는 곳이다. 공장의 창고 같은 황량한 벽돌 건물과 카페, 라이브 공연, 작은 갤러리들, 스프레이로 자유롭게 그려진 그래피티(낙서화)가 만들어내는 이색적인 분위기에 눈을 뜨지 않는 생생한 에너지가 있다.

이러한 공간적 특성을 대표하는 곳 중의 하나가 브루클린 문화예술의 발전소인 '버쉬윅 오픈스튜디오(Bushwick Open Studios)'이다. 이곳은 미술관

이 아닌 공연 예술가들도 함께하고 있는 곳으로 광주 작가 박소빈이 지난 8개월 동안(2009년 7월~2010년 2월) 뉴욕 체험을 생생하게 한 곳이기도 하다. 조만간 레지던스를 마치고 귀국할 예정인 작가는 인터뷰에서 "진정한 정신적 자유와 고독으로 작품에만 매진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며 "내면의 의식이 열리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자유와 고독으로 작품에만 매진"

박소빈의 뉴욕 레지던스는 광주 지역작가들에게 좋은 사례다. 작가와 큐레이터, 작가와 갤러리스트(갤러리 관계자), 작가와 콜렉터 혹은 페트론(후원자)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소빈은 지난 2007년 큐레이터인 탈리아 브라초포로스(Dr. Thallia Vrachopoulos)에 의해 테리갤러리(Tenri Gallery)에서 열린 전시를 계기로 미국 미술계에 입문했다. 이후 첼시에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 엘가 위머와 인연을 맺게 되면서 큐레이터와 갤러리스트의 상호 협력에 의한 '작가 만들기'가 진행됐다.

무엇보다 박소빈에게 가장 중요한 결실은 큐레이

터와 엘가 위머의 공동기획으로 마련된 첼시 아트뮤지엄 전시이다. 박소빈은 레지던스 기간 동안 제작한 14미터, 6미터의 대작과 소품들을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첼시 아트뮤지엄 3층에서 전시했다. 뉴욕 레지던스와 뮤지엄 전시에 대해 박소빈은 참 '운이 좋은 작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행운' 뿐만 아니라 작가의 진지한 자세와 노력도 바탕이 됐다. 하지만 운이 좋은 작가라는 평은 그 전시에 대한 파급이 작가가 기대한 이상의 효과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중순 시작된 전시는 연장을 거쳐 지난 2월 6일 막을 내렸다. 약 3개월간의 전시를 통해 박소빈은 일반 관람객은 물론 뉴욕의 미술관계자와 비평가들에게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박소빈은 기본적인 연필 드로잉을 바탕으로 '음과 여인'이라는 독특한 주제로 사람의 본질을 추구하는 작업을 한다. 연필화로 정착된 직접적인 성 표현으로 그녀의 작품은 일반인에게 쉽게 수용되지 못한 면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페트론, 컬렉터들이 그녀의 작품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작가는 "그들은 내 작품을 산 것만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산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것은 작가로서 자

신의 작품과 작가로서 삶에 대한 책임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작가를 지지해주고 작품을 구입해준 컬렉터의 힘이 박소빈을 '브루클린의 비상구'으로 나올 수 있게 하였던 것이다.

또한 광주시립미술관의 작가 양성 프로그램 역시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시립미술관의 팔각정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2009년 하정웅 청년작가에게 선정되는 등 지역 미술계에서도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뉴욕 엘가 위머 갤러리와 박소빈은 정식 계약관계는 아니지만 갤러리스트로서 지속적 지원이 뉴욕에서 작가로서 입지를 구축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 이제 박소빈은 광주의 작가로부터 뉴욕이라는 세계적인 예술무대에서 새롭게 자신을 부화하여 당당하게 뉴욕에서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어 가야 할 시점에 왔다.

"내 작품 아닌 내 인생을 산 것"

뉴욕 갤러리와 작가의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는 전광영이다. 지난 십여 년 사이에 국내 작가로서 전광영이 아트마켓에서 누린 성과는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아직 한국 작가에 대한 전시가 활발하지 않던 1999년, 그는 처음으로 첼시의 킴포스터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킴포스터 전시는 그의 작가적 경력에 있어서 해의 진출의 발판이 되었다. 2000년 전반기 시카고 아트페어에서 각광을 받았고 국립현대미술관의 '올해의 작가'로 선정됐다. 이후 일본 모리미술관 초대전, 2008년 첼시의 로버트 밀러 갤러리 전시로 이어져 왔다. 그는

국내 옥션의 작품판매에 있어 10명의 작가 안에 드는 곳 셀링 아티스트(good selling artist)가 되어 있다.

이런 작가에 비교하면 박소빈의 지금 입지는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아트마켓의 관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어떤 작품을 해야 잘 팔리고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애매하다. 중국의 팍아트, 하이퍼 리얼리즘이 잘 팔린다고 국내의 젊은 작가들이 전부 그런 화풍을 따라 갈 수 없다. 더욱이 지금처럼 미술사적으로 다양한 화풍이 공존하고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발전이 미술계에 미치는 파급을 생각할 때,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단일한 기준은 없다.

연필과 종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박소빈은 많은 미술이론으로 무장된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노력하는 작가에게는 컬렉터와 페트론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본다. 아트마켓 시대에 작가라면 명성과 판매 모두에 있어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자 한다. 이에 대한 답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은 자신의 오리지널리티를 만들어 내라는 것이다.

유행은 스스로 만들어내면 된다. 그것은 경향이 아니라 작가의 진지한 매진과 노력의 결정체인 것이다. 작가는 기본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작업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본질은 자신과의 충실한 만남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누가 얼마만큼 정점까지 자신을 밀고 가서 그 답을 찾아냈는가에 있다. 보여 지는 형식은 단지 겉모습일 뿐이다. 작가로 살아가는 진지함은 마켓의 논리보다 더 강할 수밖에 없다.

(조선대 대학원 미술사 전공·독립 큐레이터)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기입니다!
 세기보청기
 세기보청기 - 세기보청기

1588-8489/011-322-9100